

“여호와증인 아니지만, 폭력 거부감에 총 대신 교도소”

인터뷰 박상욱 '非여호와' 양심적 병역거부자

수감번호 1315. 푸른색 관복(죄수복)을 입은 스물세 살 청년이 3평 남짓한 방을 두리번거렸다. 뽕기통(화장실) 옆을 가리키는 싸늘한 눈빛. ‘여기가 내 자리구나.’ 2017년 7월 6일 박상욱(24) 씨는 훈련소 대신 의정부 교도소에 들어갔다. 입소식이 열린 2016년 12월 26일, 비 내리는 골목에 서성이다 병무청에 “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전화한 지 반년 만이었다.

병무청 직원도, 형사와 검사도 어리둥절했다. 여호와와 증인이 아닌 박씨는 어째서 계급장 대신 공소장을 선택한 걸까. 한국전쟁에 참전한 외할아버지와 특전사 출신 아버지를 둔 그는 2일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집중 거부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인터뷰 전날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단에 반대한 일부 대법관 의견에 반론도 내놨다. 박씨는 “현역병에 대한 처우 개선과 합리적인 대체복무가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종교적 사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된 박상욱씨가 2일 서울 망우역 인근 카페에서 메트로와 인터뷰하고 있다.

선택을 믿어주셨다. 면회도 한 달에 세 번 오셨다.”

-훈련소 대신 교도소로 향한 심경은.

“7월 6일 검찰에 자진출두했다. 호송차에 실려 교도소 정문을 통과하니 실감이 났다. 인장을 찍어 신분 확인을 마쳤다. 향문검사와 인적사항 조사가 끝나면 모

다. 매일 이어지는 종교집회도 있고, 그곳만의 서열이 있다. 5달 뒤 다른 방으로 옮겨 형기를 마쳤다.”

“현역병 처우 개선과 대체복무 조화로워야”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한 대법관 4명의 반대의견 중에는 ‘세계대전을 반성한 유럽과 달리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라는 엄중한 안보상황, 병역의무의 형평성에 관한 강력한 사회적 요청’ 등이 있다.

“입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근대 징병제 확립 이전 이야기도 나왔다. 우리의 가해역사가 없는 점은 모순이다. 베트남전과 이라크전 파병, 한국전쟁 당시의 내부 폭력, 광주 민주화 운동 등이 빠져있다. 특히 지금은 그 어느때보다 남북 평화에 큰 진전이 있다.”

-반대의견 중에는 이번 결정으로 병력 감소가 이어져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지켜줄 국가적 토대가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나라들도 논란이었다. 현역 가면 손해보고, 억지로 갈 수밖에 없는 곳이 군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일과 대만 등은 현역복무 환경을 개선했다. 굳이 대체복무할 필요가 없으니 병력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 현재 알려진 정부안인 교정시설 합숙 36개월은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 현역과 기간이 비슷해야 한다는 국제 기준을 한참 벗어났다. 대체복무 범위와 기간을 다양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군 복무 유무,

무를 마친 뒤 예비군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여호와와 증인은 자신들만의 공간이 있어서 이 모임에 관여 안 한다.”

-병역을 거부하고 감옥에 가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하다.

“입영일인 2016년 12월 26일, 병무청에 ‘병역을 거부한다’고 전화하니 담당자가 난감해하더라. 여호와와 증인인지 묻기에 아니라고 답했다. 사유서를 보내라고 해서 이메일로 전송했다. 이후 병무청이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해 5~6월 검정에서 한 번씩 조사 받고 6월 28일 판결이 났다. 징역 1년 6개월인데 출역(노역)하고 3개월 감형됐다.”

-검찰이 뭐라던가.

“보통 이런 일은 서면으로 처리하거나 안 부르는데, 북부지검 검사가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불렀다. 학교는 얼마나 다녔는지, 사회에 나가면 무얼 하고 살 계획인지 물었다. 직접 커피를 타 주면서 ‘그 안에서 잘 지내라’는 덕담도 건넸다. 자신도 기소하고 싶지 않지만 (현행법 때문에) 안타깝다고도 했다. 입대하라는 회유는 없었다. 2~3주 뒤에 공소장이 왔고 북부지법에서 선고를 받았다. 각오한 일이라 변호사는 선임하지 않았다.”

-부모님은 어떻게 받아들였나.

“병역거부 1년 전부터 어머니를 설득했다. 병무청 통화 후 아버지께 말씀드리니 불같이 화 내셨지만, 나중에는 나의

포와 칫솔을 받고 방에 들어간다. 아저씨 11명이 있었는데, 누군가의 눈짓을 따라 ‘뽕기통’ 옆 작은 공간에 앉았다. 현역 제대한 사람들아 나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다. 회사는 물론 군대 경험도 없던 나는 식사 준비와 설거지 등 실재없이 바쁘고 경직된 8일을 보냈다. 이후 출역담당 교도관을 따라 인력이 부족한 방에 들어갔다. 여호와와 증인 신도들이 묵는 곳이었다. 일반 방에 비해 합리적인 공간이었다. 하지만 나 역시 그곳에서 소수자였

폭력 내재된 사회 고민, 집중거부로...

-여호와와 증인이 아닌데, 양심적 병역거부를 어떻게 결심했나.

“외할아버지께서 한국전에 참전하셨고, 아버지는 14년간 특전사를 지내셨다. 그래서 남자라면 당연히 군대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고등학생 때였다. 텔레비전에서 광주 이야기가 나오자, 언제나 자상하던 아버지가 ‘5·18은 폭동’이라고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다. 어쩌면 박정희·전두환 정권 때 군 생활을 하신 영향이 있지 않나 추측했다. 초등·중학생 시절에는 내성적이고 말을 더듬어 동급생의 괴롭힘을 당했다. 부끄럽게도 나 역시 나보다 약한 친구를 괴롭혔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분이 불명확한 한국사회의 폭력적 구조를 알아갔다.”

“20대 들어 인문학 공동체에서 활동하며 차츰 병역 거부에 대한 생각이 변해갔다. 2013년 프랑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난민으로 인정 받은 이예다 씨 사례를 알게 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가치’라고 느끼게 됐다. 첫 영장은 2014년, 두 번째는 2016년 5월 나왔다. 당시 ‘전쟁없는 세상’에서 예비 병역거부자들의 모임이 있었다. 상상과 달리 다들 평범했다. 출소 이후 대학원에 다니거나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등 자기 삶을 잘 꾸려가고 있었다. 군 복

무를 마친 뒤 예비군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여호와와 증인은 자신들만의 공간이 있어서 이 모임에 관여 안 한다.”

-병역을 거부하고 감옥에 가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하다.

“입영일인 2016년 12월 26일, 병무청에 ‘병역을 거부한다’고 전화하니 담당자가 난감해하더라. 여호와와 증인인지 묻기에 아니라고 답했다. 사유서를 보내라고 해서 이메일로 전송했다. 이후 병무청이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해 5~6월 검정에서 한 번씩 조사 받고 6월 28일 판결이 났다. 징역 1년 6개월인데 출역(노역)하고 3개월 감형됐다.”

-검찰이 뭐라던가.

“보통 이런 일은 서면으로 처리하거나 안 부르는데, 북부지검 검사가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불렀다. 학교는 얼마나 다녔는지, 사회에 나가면 무얼 하고 살 계획인지 물었다. 직접 커피를 타 주면서 ‘그 안에서 잘 지내라’는 덕담도 건넸다. 자신도 기소하고 싶지 않지만 (현행법 때문에) 안타깝다고도 했다. 입대하라는 회유는 없었다. 2~3주 뒤에 공소장이 왔고 북부지법에서 선고를 받았다. 각오한 일이라 변호사는 선임하지 않았다.”

-부모님은 어떻게 받아들였나.

“병역거부 1년 전부터 어머니를 설득했다. 병무청 통화 후 아버지께 말씀드리니 불같이 화 내셨지만, 나중에는 나의

김정숙 여사, 인도 출국... 3박4일 일정

첫 단독 외국방문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3박 4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하기 위해 4일 오전 공군2호기를 타고 출국했다.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지난 7월 문 대통령과 함께한 국빈방문에 이어 넉 달 만이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하는 김 여사는 현지시간 5일 뉴델리에서 모디 총리를 면담하고, 람 나트 코빈드 대통령의 부인 초청 오찬에 참석한다.

6일에는 아요디아에서 열리는 허황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참석해 기념비에 헌화한 뒤 디왈리 축제 개막식과 점등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또 7일 타지마할 방문도 김 여사의 이번 인도 일정에서 새로 추가됐다.

인도의 대표적인 이슬람 건축물인 타지마할은 인도 아그라 남쪽, 자무나 강가에 자리잡은 궁전 형식의 묘지로 무굴제국의 황제였던 샤 자한이 왕비 몹타즈 마할을 추모하기 위해 건축한 것이다. 1983

년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관련 브리핑에서 “모디 총리는 디왈리 축제를 허황후 기념공원 착공식과 함께해 양국 협력과 역사를 기념하는 축제로 삼겠다”고 한국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이번 방문은 정부의 신남방 정책 핵심 협력 대상국인 인도와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김 여사는 지난 1일 인도 순방을 앞두고 랑가나탄 주한인도대사를 청와대에서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 여사는 “모디 총리의 특별 초청으로 인도를 다시 방문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2000년을 함께 해 온 한국과 인도의 관계가 양 정상께서 추진하고 계신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과 모디 총리의 신동방정책으로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완벽 보존’ 대한제국 옛 제복세트 공개

대한제국 장교 후손 육사에 기증 배꽃 수놓여진 군모부터 벨트까지 완전체 제복... 사료적 가치 높아

육군은 4일 “대한제국 시절 신식군대의 육군 군복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대한제국 군복이 정·예복 상의, 하의, 코트 형태의 외투 등이 갖춰진 한벌로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지난 2일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은 지방의 치안과 변경 수비를 담당했던 근대식 군대인 진위대(영양, 전주, 강화, 인천 등에 설치) 부위(副尉·오늘날 중위)의 군복을 기증 받았다.

군복의 주인공은 대한제국 육군 진위대 부위와 강릉재무서장을 지낸 황석(黃漸)으로, 육군박물관은 그의 종손인 황일주 씨(66)로부터 군복과 고문서를 기증 받았다.

특히 기증받은 군복은 국가 지정 문화재급으로 사료적 가치가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이 2일부터 18일 까지 공개하는 대한제국 육군 진위대 황석 부위(중위) 군복. (왼쪽 왼쪽부터 시계방향)대한제국 육군 군모, 코트, 예복, 황석 영정, 바지(공용), 정복

기증받은 군복은 대한제국의 상징인 배꽃이 수놓여진 군모, 외투, 예복, 상복(정복에 해당), 바지가 완전한 한 벌을 이루고 있었다. 또한 천으로 된 바지 벨트와 칼집이 장착된 가죽허리띠인 도대(刀帶)도 함께 보존돼 있었다.

이경미 한경대 의상학과 교수는 “1900년 7월에 개정된 대한제국 육군장졸

입대 후 편한 곳에 가는지 여부 등으로 힘의 차이가 반영된다. 이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영화 ‘내부자들’이 왜 흥행했나. 권력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아서다. 애초에 지키고 싶은 나라, 손해 보지 않는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 최소한 군대 가면 대학 등록금은 벌어들일 수 있어야 한다.”

-수감 전 ‘전쟁없는 세상’ 기고문에서 ‘총을 들 수 없는 겁쟁이로서의 내면’을 고백했다. 여호와와 증인은 종교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를 인정받았지만, 폭력에 대한 두려움도 사유가 될 수 있을까.

“판결문에는 ‘우리도 처벌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반대의견에 대한 김소영·이기택 대법관의 보충의견으로, 대체복무 입법이 마련된 상태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 빠르게는 19살에 영장이 나오는데 그동안 살아온 모습으로 어떻게 종교에 근거한 양심을 판단하느냐는 질타도 포함됐다. 종교적 이유를 인정하지 않지만, 대체복무의 필요성은 받아들여서 일종의 배려를 한 모습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소견서를 보면, 1000명에게 1000가지 이유가 있더라. 획일화된 틀을 세우기는 불가능하다.”

-군필 친구들과 논쟁을 많이 했을 것 같다.

“아무래도 친구니까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대신 내 친구들은 군 내에서 입은 상처를 이야기했다. GOP에서 어린 선임이 웃을 다 벗게 하고 벌 세운 일, 박격포가 미끄러져 발을 다친 경험 등. 이들에게 ‘양심’이라는 단어가 주는 박탈감이 크더라. 그래도 나의 선택을 공감하고 차분히 대화했다.”

-한달 전 출소하며 든 생각과 계획은.

“커다란 변화에 대한 기대는 감옥 안의 일상에서 지리멸렬했다. 크게 거듭나지는 않았다. 전역날을 맞은 또래의 기분은 모르지만, 나 역시 의무를 마치고 하나의 시기를 매듭지었다고 생각한다. 문학을 전공하다 자퇴했는데 학업을 이어갈 지 고민이다. 수감 당시의 느낌을 정리하든지,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에 연대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

/글·사진=이범종 기자 jcker@metroseoul.co.kr

/문형철 기자 captinn@